

상록탑

# 독자와의 엄중한 약속, 사실 확인의 규율

스티커를 붙였다. 본지 1508호 1면 탑 기사 일부 문장과 총학생회장 후보 이름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월요일 새벽, 수레를 끌고 학교 곳곳을 돌며 이미 배포된 신문을 회수했다. 기자들은 모두 편집국에 모여 하루 종일 오류가 난 부분에 붙일 스티커를 자르고 붙였다. 그날따라 신문을 찾는 독자 전화도 많이 걸려왔다. 참 길고도 무거운 하루였다. 편집국에 날리는 매캐한 종이 먼지가 불쾌한 것도, 잉크가 묻어 시꺼멓게 변한 손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다. 다시 한 번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약속된 시간에 독자에게 신문을 전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윤다솜  
편집부국장

“ 신뢰받는 언론, ‘사실’을 직시하자 ”

이대학보 편집부국장으로서의 1년이 지났다. 퇴임까지 약 한 달을 앞 둔 시점에서 스티커를 붙이며 절감한 것은 늘 강조해 마지않던 ‘사실 확인 규율’의 엄중함이다.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리더가 느슨해지면 신문은 허술해지고, 조직은 나태해진다. 일례로 수습기자들이 1차로 제출한 기획안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할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리더인 편집부국장의 몫이다. 하지만 이때 편집부국장의 마음속에 ‘이정도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해당 기사가 실린 신문은 ‘죽은 신문’이 되고 만다. 철저한 사실 확인 여부가 기사의 신뢰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신문은 기자의 사명과 노력이 여과 없이 반

영되는 정직한 매체임과 동시에 정직해야만 하는 매체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부정확한 사실 보도에 무너지는 태도다. 수습기자 시절부터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던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의 저자는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말한다. 또한, 이 책에 따르면 언론은 권력 엘리트와 독재적인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감시견의 역할도 담당한다. 하지만 ‘보도’를 통해 양심을 실천하는 감시견이 부정확한 사실 보도에 무너지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보도를 통해 밝히고자하는 진실 또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즉, 감시견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사실 확인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편집권 자유, 언론의 독립이라는 가치 또한 사실 확인에 근거한 정직한 보도가 이뤄질 때 더욱 빛날 수 있다.

이는 비단 언론 보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 아니다. 20대로서, 대학생으로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분석할 때도 사실 확인의 규율은 그 가치를 발현한다. 즉 우리들의 영향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복잡한 사안들도 그 내면의 사실 관계를 날카롭게 분석한 후, 분명한 기준을 갖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더 이상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사실 확인과 탄탄한 근거로 무장한 활자와 비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이다.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전하는 언론이 되겠다는 것. 8월31일 본지 1500호 발행을 맞아 지면에 기록한 독자들과의 약속이다. 이는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로 변모해 인터넷 곳곳을 떠돌고 확산돼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현 시점에서 이대학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 확인의 규율을 다시금 되새길 것을 다짐하는 엄중한 맹세다. 앞으로 수많은 기자들이 이대학보에서 활동하고, 수많은 독자들이 월요일 아침 수많은 기사가 담긴 이대학보를 펼칠 것이다. 이와 같은 본지와 독자들과의 신뢰 관계는 바로 엄격한 사실 확인 규율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 또한 앞으로 사실이라는 엄중한 잣대로 본지를 신뢰하고, 평가하며 비판해주시길 바라는 바다.

사실

# 입결문제, 학교-학생 쌍방향 소통 필요

학생들이 본교 입시결과(입결) 문제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그 동안 있어왔던 입결 문제에 대한 불만을 직접 행동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불만의 가장 큰 요지는 일부 입시학원에서 발표하는 배치표의 성적이 실제 성적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 예로 한 본교생은 본교 입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본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표를 수집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다. 이들은 불특정다수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SNS라는 특성을 이용해 수험생, 학부모 등 외부인에게 본교 입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있다. 또한, 본교에 수시 모집 시험을 보러 오는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모집을 해 기념품을 나눠주려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17일 마감된 모집에서는 137만9385원이 모였고, 학생들은 이 금액으로 직접 기념품을 구매해 이를 수험생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입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예전부터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입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곤 했다. 작년 11월 본교에는 입결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학생들은 본교에 대한 평

가절하와 함께 본교 학생들의 능력까지도 폄하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입결에 대한 평가절하가 소수의 인식을 넘어 사회적으로 퍼지면, 실제 학교 이미지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취업시장에서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1차적으로 본교를 약의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지만, 학교와 학생간의 쌍방향적 소통이 부재한 탓도 있다. 홍보 방식, 입결 공개 등의 문제에 있어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불만 섞인 외침에 학교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보다 속 시원히 터놓고 입결에 대한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25일 입학처장을 만나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 학교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본지는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학생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입결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바란다. 학교와 학생 모두가 ‘이화’라는 이름과 이미지를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소통할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 칼럼

# 대학에서 공부하기

진부한 주제이지만, 대학에의 진학 목적에 대한 논의에는 언제나 이견이 존재한다. 우리네의 인생은 끊임없는 문의 연속이다. 대학입시라는 문을 열면 또 취업이라는 문을 열어야 하고, 그 후엔 결혼, 육아, 직장 생활, 노후 대비 등의 문들이 수없이 이어진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을 취업과 그 이후 이어질 탄탄대로의 인생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의 ‘수단화’ 현상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양해  
철학 14

“ 무엇을 위한 공부, 무엇을 위한 대학인가? ”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현 시대에 진정한 대학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써 바라보고 오는 학생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 역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해진 삶의 틀 안에서 대학을 왔기 때문에 대학을 오직 순수한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채 대학에 왔다. 그러나 지난 2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은 나에게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었다.

많은 친구들이 경영, 경제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삼고 싶어 한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의 근본에는 ‘취업’에 대한 압박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1학년 1학기에 경영학과 수업을 신청 했었는

데, 첫 수업을 듣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바로 철회했던 경험이 있다. 결국 나는 이러한 선택을 과감히 버리고,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으로 택했다. 주전공은 재수 시절부터 꿈꿔왔던 인문학의 근본인 철학이다. 흔히들 나의 전공을 들으면, “너, 취업 안하고 대학원 갈 거야?”라는 질문을 하고는 한다. 우스갯소리로 인문대 전공 친구들과 나중에 치킨집이나 차리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진학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현재 공부하는 전공들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 미래를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직 미래를 위해서 사는 내가 아닌 ‘현재’의 내가 되고 싶다. 지난 2년 간 두 학문을 공부하며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부가 즐겁다고 느꼈고 이 두 학문을 더욱 더 깊게, 또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바로 현재의 나를 위한 선택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용 학문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모든 학문은 매력적이다. 내가 실용 학문을 택하지 않는 것은 순전히 나의 성향과 선호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대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공부가 싫다면 대학에 오지 않아도 괜찮지만,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 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이다. 어느 정도 사회의 틀을 따라가되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 물론 이는 모순처럼 느껴지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그 타협의 지점을 찾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니 어린 그대, 대학이라는 틀 안에서는 적어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기를 바란다.



금주의 책



**식물의 인문학** 박중환 지음, 파주: 한길사, 2014. 이 책은 ‘꽃은 무엇으로 피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계절이 꽃을 피우는 듯하지만, 답은 스트레스가 꽃을 피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다음 세대를 남기기 위해 꽃대를 올리는 식물들, 저자는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숲이 인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하듯이, 서로 닳아있는 식물과 인류문명에 대한 인문학적인 시선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식물 세계에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으나 다투지 않고 상생과 공존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식물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식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이화인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 입구] / 5층 일반자료실 580.2 박817사

여론광장

# 무구한 여혐의 역사 ... 영화 ‘자유부인’

1950년대 한국 영화 ‘자유부인’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저 혜숙이가 긴 다이아몬드 반지 좀 봐. 한 세 캐럿 정도는 될 거야. 영란인 진짜 목걸이를 걸었어.” 이 대사와 함께 나오는 반지와 목걸이를 훑는 시선. 영화를 보면서 이러한 전개 방식이 요즘의 ‘김치녀’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여성혐오 프레임과 너무나 닮아있어 놀랍고도 신기했다. 그리고 참 씁쓸했다. 어쩐이 세상은 반백년이 지나도록 이렇지도 달라진 것이 없는지!

여성을 가부장제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여성과 성적으로 문란하고 소비주의적인 여성으로 나누려는 시도, 즉 성녀와 창녀로 구분하는 프레임은 오랜 역사동안 여성의 머리 속에 들어앉아 생각과 행동을 제어해왔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여성들은 “혹시 내가 ‘자유부인’이, ‘김치녀’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끊임 없이 자신을 구속하고 검열함으로써 ‘개념녀’에 속하기 위해 노력했다. 남성뿐 아니라 이러한 프레임에 구속된 여성들까지도 다른 여성들에게 이러한 프

레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강제함으로써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영화 ‘자유부인’의 주인공 선영은 영화 제목에 걸맞게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맛보긴 하지만 결국 다시 가부장제에 머리를 숙이고 그 체제 안에 편입되기를 선택하고 만다. 남편이 외도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생길 수도 있는 일로 치부되는데 반해 아내의 외도는 남편과 자식을 매정하게 내버린 것이 되는, 이 대비가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너무나 씁쓸해진다. 옛날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옛날 일로 느껴질 날은 언제 올까?

김희지(인문·15)

| 1021~1119 중도 대출순위 |  |  |   | 제공-중앙도서관  |
|-------------------|--|--|---|-----------|
| 순위                | 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년도      |
| 1                 | 신과 함께 : 저승편  | 주호민  | 애니박스  | 2011      |
| 2                 | 아리랑 : 趙廷來 大河小説 제2판                                       | 조정래  | 해냄  | 2004      |
| 3                 | 진화와 윤리   | Huxley, Thomas Henry   | 지식출판사   | 2009      |
| 4                 | 정글만리 : 조정래 장편소설  | 조정래  | 해냄출판사   | 2013      |
| 5                 | 황제의 외동딸 : 윤송 장편소설  | 윤송   | 파피루스 : 디앤씨미디어   | 2013      |
| 6                 | 어쿠스틱 라이프   | 난다   | 애니박스  | 2011-     |
| 7                 |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  | Urry, Lisa A, Campbell, Neil A, 전상학                          | 바이오사이언스출판   | 2014      |
| 8                 | 1Q84 :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 촌상춘수   | 문학동네  | 2009-2010 |
| 9                 |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4th ed. | Celce-Murcia, Marianne, Brinton, Donna Snow, Marguerite Ann. | Natiional Geographic Learning : Heinle Cengage Learning | 2014      |
| 10                | 보보경심 : 동화 장편소설   | 동화   | 새파란상상 : 파란미디어   | 2013      |
| 11                | (Hackers) 해커스 토익 실전 1000제 : reading 2                    | 해커스어학연구소   | 해커스어학연구소  | 2011      |
| 12                | 버림 받은 황비 : 정유나 장편소설                                      | 정유나  | D&C books : 디앤씨미디어                                      | 2013-2015 |
| 13                | 드래곤 리자 : 이영도 장편소설  | 이영도  | 황금가지  | 1998      |